

2003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2003년도 본 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가 10월 10일~11일 양일간 청명한 가을하늘과 선선한 가을날씨 속에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인 부산의 부경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는 등록인원 1,100명, 특별강연 52편, 구두발표 91편과 포스터 발표 632편 등 총 775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등록인원 및 발표 수에 있어서 학회 창립 이래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학회의 특징으로는 최근 들어 시작한 심포지움 중심의 발표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번에는 여섯 개의 특별심포지움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고분자와 Nanolithography, 산란현상을 이용한 고분자 나노구조 분석, 플라스틱 광섬유 및 광통신 소재, Organic Materials for Flexible Electronics and Display, 기능성 고분자 복합체/나노복합체)이 개최되었으며 각 심포지움마다 모두 성황을 이루었다. 특별심포지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공통적인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들이 직접발표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이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학술대회가 참신하며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심포지움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 고분자층의 열음으로 인하여 심포지움주제의 선정과 특별강연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심포지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포지움 조직자에 대한 학회의 경제적 지원과 외국연사의 초청에 대한 경비지원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심포지움을 통하여 타 학문분야와 고분자과학을 접합시킴으로써 고분자과학의 영역을 확장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포스터 발표의 경우 금요일 2회와 토요일 1회 등 총3회에 걸쳐 6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포스터 발표는 넓은 발표장소로 인하여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회원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포스터 발표의 경우 지난 수년간 발표논문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발표시간과 발표장소는 한정되어 있어 넓은 발표장소를 확보하고 충분한 발표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운영이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번 발표의 경우도 예년의 2회보다 1회 더 증가하여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210편의 포스터가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에 발표되다보니 미리 찾아볼 포스터를 선정해 놓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문제는 포스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된다.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 포스터 발표에서 일부 발표자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포스터를 제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 대학원생들에게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총회에서는 금년도 상암상 수상자로 김우식 교수와 안광덕 박사, 신진학술상에 나재운 교수와 김종만 교수, 우수논문상에 이해방 박사 (폴리머지)와 강길선 박사 (영문지)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영문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의 SCI Impact Factor가 0.988로 되었다는 고무적인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의 경우도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학술대회에 걸맞게 보다 차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회장소의 선정 및 학회일정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 참가자로부터 들을 수 있어 이 문제는 학회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 생각된다.

초가을의 청명한 날씨와 더불어 이번 추계 학술발표대회가 더욱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부경대학교의 이원기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도우미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술이사 조길원>

